

화염 속 뛰어든 경찰관, 95세 할머니 살렸다



보성 읍내파출소 박유민 경위.

주택 화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화염과 연기를 뚫고 집안에 들어

보성 읍내파출소 박유민 경위…“경찰관으로서 당연한 일”

가 거동이 불편한 95세 할머니를 구했다. 18일 전남 보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1시51분께 보성군 보성읍 한 주택에서 불이 났다는 소방공대응 요청이 접수됐다. 공대응을 받고 출동한 보성소 읍내파출소 소속 박유민(43) 경위 등 경찰관 6명은 소방대원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했다. 박 경위는 현장에 도착해 주택 내 외부에 불길과 연기가 빠르게 번지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불길을 피해 산 언덕으로 대피한 가족들의

“거동을 못하는 할머니가 안에 있다. 살려달라”는 울부짖음을 들었다. 폭발음과 함께 검은 연기가 다시 한번 자욱하게 피어오르자 박 경위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 골장 자신의 겹옷을 물에 적서 얼굴을 감쌌다. 그 상태로 문을 부수고 주택으로 진입한 박 경위는 방 안에서 의식을 잃어가던 할머니 A(95)씨를 들어 안고 무사히 탈출했다. A씨는 한 달 전 다리 수술을 받아 거동이 어려워 대피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 가족들은 “우리도 불길 속에 뛰어들지 못했는데 경찰관이 목숨을 걸고 구해줬다. 죽어서도 은혜를 잊지 않겠다”며 박 경위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다. 박유민 경위는 “어렸을 때 할머니 손에 자라 할머니에 대한 애정이 크다. 집안에 할머니가 계신다는 말을 듣고 무조건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경찰관으로서 생명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장국도 기자



여수광양항만공사 '따뜻한 밥상' 후원 여수광양항만공사(이하 YGPA)는 여수시청 시장실에서 개최된 여수지역 저소득 청년 취업준비생 종식지원사업인 '따뜻한 밥상' 후원증서 전달식에 참여했다고 20일 밝혔다. 2017년 여수시에서 처음 시작된 이후 2018년부터 GS칼텍스 노사에서 동참, 2023년부터는 YGPA도 후원에 참여하고 있다. /광양=조준익 기자



순천농산물도매시장, 25주년 기념 '1000만 원 상당 농산물' 기부 순천시는 순천농산물도매시장 개장 25주년을 맞아 순천도매시장 소속 중도매인의회와 법인, 공판장 그리고 유통종사자들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1000만 원 상당의 농산물을 기부했다고 20일 밝혔다. /순천=조준익 기자



순천소방서, 한국소방자원봉사단 파고라 기증식 순천소방서는 한국소방자원봉사단 우리함께 현재 이사장이 소방공무원 복지와 쉼터 조성을 위한 '파고라'를 기증했다고 20일 밝혔다. 설치된 파고라는 순천소방서 내 휴게공간에 마련돼, 현장 활동으로 지친 소방대원들이 잠시나마 쉴 수 있는 쉼터로 활용될 예정이다. /순천=조준익 기자



광양제철소, 어르신들과 함께 '힐링 여행' 광양제철소 마음이음 꽃꽂이 재능봉사단이 지역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여행 프로그램 '홀몸 어르신과 함께하는 행복한 힐링 더하기'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광양=조준익 기자

한전 광주전남본부 '산불 예방' 활동 강화한다

국립공원공단과 캠페인…산불 초기 대응 플랫폼 구축



한전 광주전남본부가 유관 기관들과 산불 예방 협력 공조 체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한전 광주전남본부는 최근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와 합

한 캠페인을 추진해온 한전 광주전남본부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무엇보다 양 기관이 산림 보호와 안정적인 전력공급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상생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앞서 광주전남본부는 대국민 서비스 강화를 위해 지난 1월 전남도, 전남소방본부, 경찰, 군부대 등과 함께 산불 초기 대응 플랫폼 구축을 시작으로 연중 재난 재해 예방 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 한병준 한전 광주전남본부장은 “산불 예방 활동과 함께 국민과 같이 하는 든든한 행복 에너지라는 한전의 기업 비전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소통 활동을 펼쳐 가겠다”고 말했다. /김도기 기자

광양교육청, 작은학교 공동교육과정 운영 협의회



광양교육지원청은 광양 봉강라운지 144에서 '2025 작은학교 공동교육과정 운영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교육여건이 열악한 작은학교 간의 교육협력력을 통해 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광양교육지원청이 추진하는 '작은학교 공동교육과정'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구체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광양 관내 작은학교 초·중·고원 30명이 참석해 공동교육과정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학교 간 학급 매칭을 통해 공동 운영의 기반을 다졌다. 특히, 참여 교사들은 각 학교의 여건과 학생 수에 맞는 교육과정을 어떻게 연계하고 공동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해 사례를 나누고 실질적인 운영방안을 협의했다. 광양교육청 김여선 교육장은 “작은학교 공동교육과정은 교육 기회의 격차를 줄이고,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실천”이라며 “교사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협력적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광양=조준익 기자

광주시, 자치구·산하기관 등 감사관계관 역량강화 워크숍

실무자 150여명, AI활용 특강·감사 사례 공유



광주시는 시, 자치구, 소방본부, 산하기관 등 청렴·감사업무 담당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7~18일 이틀간 인재교육원 등에서 '감사 관계관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은 감사 및 청렴 업무 담당자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기관 간 협업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 첫날에는 박을미 변호사(국회권익위 등록 청렴강사)의 사례 중

심 청렴교육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직무 효율화 특강, 최신 감사 경향, 반복적으로 지적된 감사사례 등을 공유했다. 둘째날에는 김수종 대구광역시 감사위원장이 감사보고서 작성 및 문답 기법 등 실무 중심 교육을 진행했다. 광주시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반부패 청렴인식 제고 ▲감사 실무자의 역량 향상 ▲업무 효율화 증대 ▲감사기관 간 소통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기대하고 있다. 임태형 감사위원장은 “이번 워크숍은 변화하는 감사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실효성 높은 내부통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소통의 장이 됐다”며 “청렴한 공직문화와 선도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김도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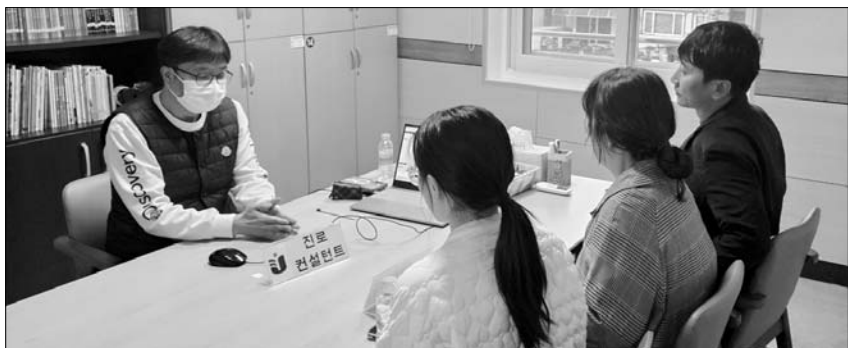
이산가족의 날 고향방문 행사 참가하세요

28일까지 접수…7월 중국 대련·단둥 등 문화탐방

전남도는 '이산가족의 날'을 기념해 전남지역 이산가족을 대상으로 '고향방문 행사' 참가자를 오는 28일까지 25명 내외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북측 접경지역을 방문해 실상의 아픔을 나누고 정서적 위로를 전하기 위한 교류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로 선정되면 7월께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 대련·단둥 등지에서 문화탐방과 이산가족 간담회 등에 참여하게 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최근 6개월 이상 전남에 거주한 자로 ▲이산가족 1~2세대 및 그 가족(이산가족관리번호 제출이거나 ▲실향 및 이북도민 1~2세대와 그 가족(기본증명서에 본적지 기재)이거나 ▲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족(북한이탈주민확인증 제출)이다. 세대당 1명 신청이 원칙이나, 만

전남교육청, 중고생·학부모 진로진학 상담

1대 1 맞춤형 상담…대입 정보·진로 설계 방법 등 안내



전남교육청 진로진학상담센터는 내년 2월까지 지역 중·고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맞춤형 진로진학상담을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진로진학상담센터 접근이 어려운 군 지역 학생과 학부모의 진로·진학 고민을 해소하고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진로설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 내 17개 군 단위 교육지원청 가운데 15개 교육지원청이 참여한

왕조1동 복지기동대, 장애인 가구 대청소

스스로 청소 어려운 세대 청소·정리정돈 등 도움 손길



순천시 왕조1동은 복지기동대가 따뜻한 봄바람과 함께 이웃의 마음까지 환하게 밝혀주는 봄맞이 대청소를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청소 대상 가정은 신장장애로 투석치료 중인 아버지와 지적장애(심한)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딸이 함께 살고 있는 곳으로, 집안 곳곳에 먼지와 쓰레기가 쌓여 위생 상태가 취약한 상황이었다. 기동대원들은 집안 구석구석 먼지를 털어내고, 정리 정돈을 하는 등 대

청소를 해주어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냈다. 홍성일 복지기동대장은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기동대가 필요한 이웃이 있다면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고 전했다. 신혜정 왕조1동장은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이웃에게 기동대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큰 힘이 됐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순천=조준익 기자